

“5·18 진상규명 손 뉘냐”...기념식 앞둔 광주민심 폭발

정치권 외면에 발포 명령자·성폭행 가해자 등 실제적 진실 규명 지지부진 비난 고조 여야4당 ‘통 큰 담판’ 특별법 처리·조사위 구성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한국당 압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조현재 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수현 정책실장, 고민정 대변인, 강기정 정무수석, 정해구 정책기획 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원장,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촛불 혁명 이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법부인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은 촛불 혁명 이후 2년이나 지났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특조단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 사실을 밝혀내고 여성가족부 등 정부 공동조사단이 계엄군들의 잔악한 집단 성폭행 및 성고문 등을 확인했지만 발포 명령 지휘관이나 성폭행 가해자 등 실제적 진상 규명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가보훈처가 자체 조사를 통해 계엄군들의 현충원 안장과 국가 유공자 지정을 확인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광주 민심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당 차원의 숨 방망이 징계가 이어지고 5·18 진상조사 위 구성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5·18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눈길도 굵지 않다. 당 차원에서 5월 진상 규명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호남 민심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당장 5

·18 진상조사위원 선정이 지도부의 친소 관계가 영향을 미쳐 ‘지역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5·18 관련자들을 상임위원으로 추천, 한국당이 시비거리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상대가 한국당인 만큼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이를 간과, 결과적으로 진상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게 됐고 5·18 망언 이슈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과 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하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뜻뜻하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통 큰 담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야 4당 지도부가 조건 없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공동 제안, 한국당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마져 외면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5·18 왜곡 처벌 특별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주장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헬기 기총소사, 집단 성폭행 등 참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빈 손으로 참석한다면 광주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국정농단과 타협 어려워...청산 후 협치”

청와대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 많은데, 당연히 노력을 더 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복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상식·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일자리·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광융합 장비 구축·생체의료산업 기반 고도화 전남, e-모빌리티·드론 등 미래핵심산업 연계 증점

산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광주시는 광산업의 융합과 생체의료기술을, 전남은 융합기기와 첨단소재 융합제품 등의 과제를 각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과제를 통해 고가의 관련 장비를 구축,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기업 지원이 가능해 산업 기반을 튼튼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침체기에 있는 광산업과 의료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전남은 e-모빌리티, 드론 등 미래핵심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했다는 평가다.

◇광주, 광산업 융합과 생체의료기술에 방점=광주시는 ‘광기반 기술 연계 광융합산업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광융합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축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신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96건의 기술 지원, 18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부흥을 이끌 계획이다.

광산업은 지역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 광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산업으로 광융합산업 육성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생체의료산업 보유기관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는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의 기구축된 장비·인프라 고도화 및 다각화와 이를 통한 연계 협력 플랫폼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장비·인프라를 통해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사업화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생체의료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은 2002년 타이타늄센터 구축사업(산기반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치과용정밀장비및부품지역혁신센터가 10년간 구축된 바 있다. 201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

정되면서 단위사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전남, 첨단·융합 통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전남도는 ‘융합기이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과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융합기기는 기계, 전자가 융합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자기전차, 드론 등이다. 전원시스템은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탑재형 충전기 등 전력 변환 및 저장장치다. ‘융합기이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 과제를 통해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이 직접화된 영광 대마산단 3306㎡ 부지에 전원시스템 평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구역이 위치한 고흥에는 드론 실증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주혁신산단 에너지융합캠퍼스, 순천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전원시스템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등 제품 개발, 평가, 실증 및 양산이 가능한 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 과제는 전남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장비, 기술, 전문인력 등 연계 협력을 통해 효과적 기술사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지역 혁신기관은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금속소재), 세라믹산업융합지원센터(세라믹),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고분자),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정밀가공) 등이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사업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업 평가를 대비해 전문가 초청 가상 발표회 개최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결과”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남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 인프라 구축, R&D,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산업생태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화려광산

광 산 문 화 재 로 이 야 기 를, 시 간 을, 집 을, 그 리 고 오 늘 을 짓 다

축 제

농부와 시인의 집에서 만나는
가옥 이야기 축제

5/11, 6/8, 9/7, 11/9

체 험

놀이와 예술로 경험하는
농가의 사계

4월~6월 중 5회

2019 생생문화재

광산 가옥, 짓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세 곳의 광산 가옥 문화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축 제

아이에게 시가 필요한 시간
아시벌의 꼬마시인

6/6, 10/3

강 연

용아의 문학세계에 빠지는
시인의 사계

5/15, 6/19, 9/18, 10/16

교 류

청년의 시문학 고민상담
월간청년

매월 첫번째 화요일

공 연

달빛 아래 즐기는 문화예술
야호! 달빛소나타

5/18, 9/21, 10/19

장덕동근대한국

등록문화재 제146호

용아생가

시도기념물 제13호

문의 광산구 문화예술과 062-960-3827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월봉서원 홈페이지
www.wolbong.org에서 확인하세요!

주최

주관

지원